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기획위원모임 : 29일(토) 오전 11:30 교회에서 기획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신앙실천 : 남북의 평화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아 2:8-13 / 시 45:6-9	2부	엡 6:10-20
예배	약 1:17-27 / 막 7:1-8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유경순 이은옥 임옥기 안현숙 하미림 송형운 이유진 정재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차혜심 이은주 윤정화 주은경 이건우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41-45세)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제13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위
 에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전쟁을 도발하려는 세력들, 갈등의 분위기를
 조장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게 하려는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남과
 북이 대립과 반목을 멈추고 대화와 상생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꾸만 난폭해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이 없고 연
 약한 이들을 향한 잔혹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기적인 욕심과 불만으로 가
 득 찬 마음을 비워내고 소박한 기쁨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샘솟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60. 시편 139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안길상 권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함께

♣ 성경봉독 I. 왕상8:22-30 엠6:10-20 요6:56-69 김동호 선생
 II. 창 23:16-20 신영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시편 23편 찬양대

말 씬 I. 마음의 습관 신진식전도사
 II. 막벨라 발 굴 김기석 목 사

거둬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해경 구재원 국지영 권혁순 박혜경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정화 김중현 성귀옥 박영희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심화섭 정영란 안길상 이형숙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봉옥 이부곤 이영욱 장은주 이윤석 박안수 이승석
 이은경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정현선 유병선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최 숙 최은미 하현철 최성애 한완식 임정자

감사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용성 강지혜 김남홍 선우영 김명순 이교영 김인석 이선화
 김재흥 최희영 김태정 김향자 문금석 박재영 안정준 안태호 이진희 안준용
 오진훈 노순옥 유종희 이강석 이경희 이범석 류정욱 이은혜 이현숙 한우리
 유하영 무명11

생일감사헌금

김정진 김혜정 김정화

녹색꿈헌금

김은정 윤정덕 구성실 장병준 박소현 장재영 김재영 무명7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쉽	쉽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꽃의 기억

어시장 꽃게들이 트럭에 실려 떠난 자리
꽃게들의 다리가 널려있다

몸통은 어디론가 다 떠났는데
남은 집게다리는 아직도
지켜야 할 그 무엇이라도 있다는 듯이 꼭 아물려 있다 더러는
이썩이면 됐다는 듯/ 무엇을 기꺼이 놓아준 표정이다

제 몸을 먹여 살렸던 연장이며
제 몸을 지키던 무기였던 것
종내는 제 몸을 살리기 위해
제 몸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냈을 터

몸통이 두고 갔거나
다리가 몸통을 떠나보냈거나
한 쪽 손을 두고 떠난 이주 노동자들처럼
꽃게에게 마음이 있다면/ 집게발에 들어있을 것이다

끝까지 버틴 흔적,
그래서 남겨진 꽃게의 집게다리엔
슬픈 꽃무늬가 있다

- 복효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 앞에서 주님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심지에 불을 밝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의림 선생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리 봄 선생 허신열 집사

8	영접위원	윤석철 최철수 정원석 백혜숙 김금순 강순배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피터 모린

피터를, 그가 내게 미친 영향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그가 프랑스인임을 한눈에 알았다. 미국에서 이미 20년이나 살았음에도 여전히 그의 억양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활력적인 사람이었다.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말이 없을 때조차 어떤 기운이 뻗쳐 나오는 듯했다. 말을 할 때 드러나는 그의 모습, 한쪽으로 기울어진 고개, 살아 있는 표현력, 따뜻한 두 눈, 손짓, 몸짓 등의 모든 것이 상대방의 눈을 사로잡았다. [.....]

“레닌은 ‘혁명 이론 없이는 혁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녹색혁명의 이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피터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며 크게 기뻐했다. 그는 모두가 형제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기를 소망했다. 그의 생각에는 형제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선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였다. 그래서 형제들을 향한 이 노력이 더 나은 물질적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다. 스스로의 자질을 발휘하고 모든 예술에서 표현되는 사랑과 찬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적인 삶. 그는 모든 사람이 음식이나 옷과 같이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생산하며, 적어도 이러한 생필품에 관한 한 결핍을 겪지 않기를 원했다. 그는 내게 이와 관련한 비전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면서, 그 원대한 계획을 “종교, 문화, 경작”의 종합이라고 불렀다.

언제나 도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일주일 단위로 급료를 받아서 그 즉시 소비하던 나로서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물론 지금이야 명백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남들에게 그의 관점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피터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이 바뀌어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 계획은 실현될 것이다.

피터는 누구를 만나든 첫 대면에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뭔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고통과 불의의 상황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일거에 세계 변혁의 의지를 심어 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는 개별적 역량을 일깨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크고 관대한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내게 그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면 남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찾으려 한다는 것. 피터는 그것을 즐겨 “인간 접촉의 기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본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었다. 더욱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

피터는 임금제도에 격렬히 반대하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노동의 대가로 돈이 아니라 답례품을 받았다. 그가 “선물”이라고 지칭한 그 답례품이란 마을의 가게에서 가져오는 음식과 옷, 자신이 잘 곳, 사제의 서재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 정도였다. ... 그는 자신이 아무리 가난해도 베풀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는 가난을 믿고 사랑했으며, 바로 그 가난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힘을 느꼈다. 그는 가난과 극빈을 구분했지만, 그의 삶은 이 둘을 빈번히 넘나들어서 남에게 베풀 때는 자신이 별거벗어야 했다.

그는 몸에 걸친 것 외에는 일체의 여벌옷이 없었음에도, 누가 걸옷을 달라 하면 속옷마저 벗어 주라는 복음서의 권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남에게 다 벗어 주고 길을 가다가 걸옷이 필요한 사람을 또 만났을 때 그를 데리고 친구에게까지 가서 걸옷을 벗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피터는 그런 인간이었다.

- 도로시 데이, 「고백」 (복있는사람) 중에서
도로시 데이(1897-1980)는 미국 가톨릭 평화운동가로 경제공황과 전쟁, 사상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과 미국 사회를 위해 큰 평화의 길을 연 사람이다. 피터 모린(1877-1948)은 그의 멘토이자 동지였다.